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

김성은*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인권감수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68.3점, 윤리적 가치관 유형은 상황론자(61명, 36.3%)가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성별($t=-2.71, p=0.007$)과 윤리교육경험($t=3.00, p=0.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은 돌봄 제공자로서의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교과과정 중 윤리 관련 교과 개발 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색인어

간호, 윤리, 인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건강수준 향상과 생명연장이라는 의학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생명연장기술이나 인공수정 기술의 출현 및 안락사, 뇌사, 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진단 등 여러 가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윤리적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그 본질과 범위가 과거와는 달리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기존의 윤리적 기준이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윤리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상업주의의 발달로 인해 초래된 개인주의적 사고성향은 도덕적 위기상황을 더욱 촉진하게 되어[1] 윤리적 가치관 확립 및 인간의 존엄성 옹호가 강조되고 있다.

간호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인간 존재 및 그 존재의 질에 대한 가치에 관심을 갖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과학으로, 돌봄을 본질로 삼고 있다. 즉 인간을 총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은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이념과 신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2]. 이러한 간호의 특성상 어느 직업보다 인류와 사회에 대한 봉사과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3], 대상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4] 법적·윤리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 요구된다[5].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이에 국제 간호협회에서 1953년에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공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1972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노력을 해왔다[2].

윤리적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하며,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두 축을 놓고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상황론자와 이상주의는 높고 상대주의 성향은 낮은 절대론자, 이상주의는 낮고 상대주의 성향이 높은 주관론자,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성향이 모두 낮은 예외론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6]. 상황론자는 현실에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형태(ideal type)로, 기존의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믿는 유형이다. 절대론자는 보편적인 도덕기준에 의해 최상의 결과가 획득된다고 믿는 유형이고, 주관론자는 보편적인 도덕 규칙보다는 개인적인 가치와 조망이 그들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형이며, 예외론자는 절대적인 기준은 따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는 유형을 의미한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존재의 가치와 독립적인 인격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으로 간주된다[7].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적이며 우선적인 권리인데, 간호는 인간의 기초 권리 중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2]. 사람이 인권옹호 행동을 하려면 인권감수성, 인권에 대한 판단력,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옹호행동의 네 가지 심

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8] 그 중 첫 번째 과정이 인권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7]. 즉 한 개인의 인권감수성은 인권상황 지각능력을 통한 결과지각능력이 책임지각능력을 만나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가 결정된다[7].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의 정도가 높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인권의식 고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9]. 간호사는 직·간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와 직접적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임상실무현장에서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므로 인권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정신보건법 제6조 2항(인권교육)이 신설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또는 종사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분야에 국한된 실정이다.

개인의 가치는 전문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인간을 돕는 간호사에게는 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높은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2]. 간호사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형성과 인권감수성 고취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되기 이전 단계인 간호대학교육에서의 윤리 교육 및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것은 간호교육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간호윤리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

펴보면, 간호사나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나 윤리적 갈등[10-13],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갈등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대처유형 분석[14,15]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의 인권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과 인권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16]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권감수성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시 윤리적 가치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고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어떠한지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추후 간호학생의 간호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의식 고양과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인권감수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인권감수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 수준을 조사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라북도과 충청북도 소재의 각각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 [17]을 이용하여 차이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9,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0.3, 그룹수 4로 한 표본의 크기는 164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81가 회부되어 회수율은 90.5%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168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두 축을 놓고 개인들의 윤리적 차별성을 측정하는 Forsyth [6]가 개발한 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EPQ)를 박현수[18]가 한국인에게 맞게 번안한 것을 홍새롬[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별 10개 문항의 평균을 구해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크게 상황론자, 절대론자, 주관론자, 예외론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한다. 홍새롬[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이상주의 0.87, 상대주의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이상주의 0.85, 상대주의 0.82였다.

2)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 등[7]이 개발한 인권감수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확인하여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로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딜레마형식의 에피소드 10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에피소드에 대하여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안 문항은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인권감수성과는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이 인권감수성과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보다 높은 반응만 선택하여 그 평정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문항당 0점~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에피소드당 세 질문 문항이 있으므로 한 에피소드당 0점~15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도구는 총점 0점~15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78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전체 인권감수성과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본 연구의 대상자 168명 중 여성이 146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

은 20.4세였다. 학년은 1학년 46명(27.4%), 2학년 32명(19.0%), 3학년 48명(28.6%), 4학년 42명(25.0%)이었다. 종교는 99명(58.9%)이 있었으며, 윤리교육은 130명(77.4%)이 참여 경험이 있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론자 61명(36.3%), 예외론자 42명(25.0%), 주관론자 35명(20.8%), 절대론자 30명(17.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n=168)

특성	구분	n (%)	Mean±SD
성별	여	146 (86.9)	
	남	22 (13.1)	
나이(세)	≤19	53 (31.5)	20.4±2.43
	≥20, <22	97 (57.7)	
	≥23	18 (10.7)	
학년	1	46 (27.4)	
	2	32 (19.0)	
	3	48 (28.6)	
	4	42 (25.0)	
종교*	유	99 (58.9)	
	무	66 (39.3)	
윤리교육경험*	유	130 (77.4)	
	무	36 (21.4)	
윤리적 가치관	상황론자	61 (36.3)	
	절대론자	30 (17.9)	
	주관론자	35 (20.8)	
	예외론자	42 (25.0)	

SD : standard deviation.

*결측치 제외.

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수준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68.3±24.25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평균은 각각 21.7±9.24점, 23.3±9.54점, 23.3±8.75점이었다<Table 2>.

3.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

연구대상자의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인권감수성의 에피소드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0.1±4.82)이었으며, 노인의 행복추구권(9.0±4.67), 정신질환자 사생활권(8.9±5.73), 평등권(7.8±4.96),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7.2±6.04), 장애우 교육받을 권리(6.5±5.56) 등의 순이었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1.7±3.3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수준(n=168)

구분	Mean±SD	최소값	최대값	범위
인권감수성	68.3±24.25	5	129	0~150
상황지각	21.7±9.24	0	44	0~50
결과지각	23.3±9.54	0	45	0~50
책임지각	23.3±8.75	3	42	0~50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n=168)

구분	인권감수성 (0~15)	상황지각 (0~5)	결과지각 (0~5)	책임지각 (0~5)
에피소드 1. 노인의 행복추구권	9.0±4.67	2.2±2.26	3.6±2.02	3.2±2.01
에피소드 2. 불법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6.5±5.27	2.1±2.15	1.8±2.20	2.6±2.18
에피소드 3. 장애우 교육받을 권리	6.5±5.56	2.2±2.30	2.3±2.25	2.0±2.19
에피소드 4.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10.1±4.82	3.6±1.91	3.7±1.93	2.8±2.20
에피소드 5. 환경권	5.1±5.64	1.6±2.17	1.7±2.29	1.7±2.19
에피소드 6. 평등권	7.8±4.96	2.0±2.37	2.7±2.36	3.1±2.08
에피소드 7. 사생활권	5.6±5.72	2.3±2.37	1.8±2.31	1.6±2.17
에피소드 8.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7.2±6.04	2.7±2.36	2.0±2.29	2.6±2.28
에피소드 9. 정신질환자 사생활권	8.9±5.73	2.7±2.37	3.1±2.27	3.1±2.14
에피소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1.7±3.30	0.4±1.28	0.6±1.59	0.7±1.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n=168)

성별	번호	구분	인권감수성	t/F (p-value)	상황지각	t/F (p-value)	결과지각	t/F (p-value)	책임지각	t/F (p-value)
성별		남	55.5±26.20	-2.71 (0.007)	16.8±10.31	-2.73 (0.007)	17.3±8.98	-3.22 (0.002)	21.4±9.28	-1.12 (0.264)
		여	70.2±23.40		22.4±8.87		24.2±9.33		23.6±8.66	
학년		1학년	70.8±20.61	1.18	23.4±7.72	1.65	24.7±9.10	1.07	22.7±7.90	0.852
		2학년	64.6±28.10	(0.319)	19.0±10.56	(0.179)	20.8±10.45	(0.365)	21.7±10.01	(0.467)
		3학년	70.9±24.83		22.5±9.40		23.6±9.83		24.7±8.72	
		4학년	67.6±23.96		20.9±9.31		23.1±8.91		23.6±8.69	
종교*		유	67.0±24.55	-0.87 (0.384)	20.8±9.54	-1.77 (0.078)	23.5±9.57	0.23 (0.819)	22.8±8.85	-0.82 (0.412)
		무	70.4±24.34		23.4±8.68		23.1±9.62		24.0±8.76	
윤리교육경험*		유	71.0±24.41	3.00 (0.003)	22.6±8.88	2.42 (0.017)	24.3±9.69	2.99 (0.003)	24.2±8.78	2.47 (0.015)
		무	57.6±20.83		18.5±9.83		19.0±7.59		20.1±8.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결측치 제외.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t=-2.71, p=0.007$), 윤리교육경험($t=3.00, p=0.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에서는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각각 성별과 윤리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책임지각은 윤리교육경험($t=2.47, p=0.015$)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교육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수준이 더 높았으며, 책임지각은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교육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주관론자에서 인권감수

성의 평균 점수가 72.5점으로 가장 높고, 예외론자에서 6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 수준을 조사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을 분류한 결과, 상황론자가 36.3%로 가장 많았고, 예외론자 25.0%, 주관론자 20.8% 순이었으며, 절대론자가 1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인[20]의 연구에서 상황론자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대론자는 25.7%, 주관론자 25.1%, 예외론자 19.9% 순으로 나타나 상황론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은 비슷하였다. 한편 공중관계 실무자(public relations practitioner)를 대상으로 한 홍새롬[19]의 연구에서는 주관론자가 31.7%로 가장 많았고, 절대론자, 예외론자 순으

<Table 5>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n=168)

변수	이상론자 (n=61)	절대론자 (n=30)	주관론자 (n=35)	예외론자 (n=42)	F	p-value
인권감수성	70.0±25.60	66.2±23.28	72.5±27.63	63.7±19.36	1.03	0.383
상황지각	22.8±9.46	19.1±8.29	23.6±10.38	20.3±8.22	1.89	0.134
결과지각	23.4±9.55	23.7±9.53	24.5±11.50	21.7±7.73	0.58	0.632
책임지각	23.8±9.50	23.4±7.94	24.4±8.56	21.7±8.39	0.74	0.53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로 나타났으며, 상황론자가 20.5%로 가장 적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경향이 모두 높은 상황론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각 개별적 상황마다 무엇이 가장 선하고 옳은 판단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68.3점으로 나타났는데, 인권감수성 수준이 77.6점이었던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일반 대학생 88명을 대상[7]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에피소드별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0.1점), 노인의 행복추구권(9.0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8.9점)에서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내었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1.7점), 환경권(5.1점), 사생활권(5.6점)에 대하여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던 본 연구 결과에 반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용린 등[7]의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11.8점) 및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11.0점)가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내었고, 사생활권(4.0점) 및 환경권(5.7점),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5.9점) 항목에 대하여 가장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노인의 행복추구권과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에서는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인 항목 중 하나인 장애우의 신체 자유권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의 수준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판단하는 항목의 에피소드는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범죄자들의 재범률 감소와 교화를 위해 최근 석방된 절도 전과 5범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는데, 다수의 안전과 복

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격리를 통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 입원으로 환경적 역제의 관찰과 낙상이나 상해 예방, 처치 방해나 정신행동에 대처하기 위해[21] 응급적인 치료적 중재의 방법으로 격리와 역제를 시행하는 것을 경험하여 교화를 위한 보호감호 처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고유한 한 개인으로 각각의 대상자를 바라보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자아존중감 및 신체적 안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야 하는 간호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중재의 방법은 최소 사용이나 비사용으로 표준간호의 지침이 바뀌면서 적절한 표준 케어의 제공 및 유지를 확인하는 돌봄제공자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2]. 또한 최소의 사용일지라도 모든 중재가 치료 목적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제한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치료적 적용 기준을 비롯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교육 및 성찰이 심도 깊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성별($t=-2.71, p=0.007$)과 윤리교육경험($t=3.00, p=0.003$)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용린 등[7]의 연구에서 여성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김동선[23]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에서 인권감수성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윤리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은 본인의 판단으로 대상자에게 얼마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고민하며, 예비돌봄제공자의 입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권감수성의 향상은 실무현장에서의 윤리적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 중 윤리 관련 교과 개발 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의 다양성 모색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국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질문에 대한 응답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㉔

REFERENCES

- 1) 김은희, 이은주.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비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2 ; 15(1) : 78-95.
- 2) 홍선우, 김지수, 현혜진.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지 2011 ; 11(6) : 260-269.
- 3) 박진희, 김용순, 김원옥. 우리나라 간호윤리교육의 현황 및 전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12(3) : 251-260.
- 4) 한성숙, 김용순, 박진희 등.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도 비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7 ; 10(2) : 117-124.
- 5) 이미애.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력에 관한 윤리교육의 효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12(2) : 177-188.
- 6) Forsyth DR.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 Pers Soc Psychol 1980 ; 39 : 175-184.
- 7) 문용린, 문미희, 곽윤정.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 8) Rest JR. Morality. eds by Mussen PH, Flavell J, Markman 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4th ed. New York, NY : Wiley, 1983 : 556-629.
- 9) 박정선.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2007.
- 10) 권영미.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과 윤리적 가치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2 ; 8(1) : 17-28.
- 11)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간호학생의 간호 관련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간호행정학회지 2007 ; 13(2) : 145-155.
- 12) 전현숙.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기본간호학회지 2011 ; 18(3) : 401-410.
- 13) 박현주.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간호행정학회지 2009 ; 15(1) : 128-135.
- 14)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003 ; 9(3) : 459-480.
- 15) 이광자, 유소연.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대처유형,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2011 ; 17(1) : 1-15.
- 16) 주효경. 인권감수성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 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17)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et al.

-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 Res Methods 2009 ; 41(4) : 1149-1160.
- 18) 박현수. 광고윤리; 소비자 평가 및 윤리적 가치관의 중재효과-7년 전과 현재의 비교. 광고학연구 2002 ; 13(2) : 93-112.
 - 19) 홍새롬. PR실무자 개인윤리성향과 직업윤리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 20) 김영인.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4.
 - 21) 박미화, 박명화. 노인요양 Best Practice 가이드-환자 안전을 위한 신체 억제대 감소 지침. 서울 : 정담미디어, 2014.
 - 22) 공은희, 조은희, 송은진 등. 억제대 비사용 케어, 취약한 노인을 위한 개별화된 접근. 서울 : 정담미디어, 2014.
 - 23) 김동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의사결정유형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4.

Ethical Valu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KIM Seong Eun*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relative to their ethical valu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swered by 168 nursing students from two South Korean universities. A t-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for Windows program. The distribution of ethical values was as follows: situationism (36.3%), exceptionism (25.0%), subjectivism (20.8%), and absolutism (17.9%). The mean score of the subject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68.3 poi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among the different groups based on ethical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uman rights sensitivity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ethics curricula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nursing, ethics, human rights sensitivity, ethical values

*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